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절실하다

수진사 방화범 망발 '충격'
장애인차별 · 편견도 여전
故 변희수 하사 49재서도
"차별 없는 세상" 발원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난해 남양주 수진사 산신각에 불을 질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수진사 방화범' 장모씨가 법정에서 "방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불 지르라면 또 불을 지르겠다" "그곳에서 순교를 하고자 했지만 안됐다"는 등 왜곡된 신앙심을 쏟아내 재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소수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자 당당한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故변희수 하사가 사회적 편견 속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지 49일이 지났고, 장애인의 날 41주년을 맞아 장애인불자모임 '보리수아래' 회원들이 장애인을 향한 여전한 차별에 아쉬움을 전했다.

이 모든 혐오와 상처, 논란의 공통적인 요인이 사회적 차별라는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재차 확산되고 있다.

사노위, 故 변희수 하사 49재

성소수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자 당당한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故변희수 하사가 사회적 편견 속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지 49일이 지났다, 변 하사의 죽음은 편견과 혐오에 사로잡힌 우리사회의 참혹한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재차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가 4월 17일 서울 법련사(주지 진경)에서 봉행한 故변희수 하사의 49재 법회는 고인의 넋을 기리는 동시에 차별 없는 사회를 발원하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이날 49재에는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한 위원 스님들과 고인의 부모님, 지인, 생전 고인의 뜻을 지지했던 이들이 함께했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추념사에서 "변 하사는 오늘 49재로서 이 생에서의 삶을 마치고 아미타불의 세계로 떠나게 됐다"며 "아미타부처님 세상은 커밍아웃도,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다음 생애는 오롯이 변희수라는 한 존재로서 못다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단에 놓인 위패에는 남녀 성별을 표기하지 않았다. 단지 흰 한지에 변희수 영가라는 이름만 새겨졌다. 성소수자를 보는 관념이 이분법적이고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헌화도 흰 국화가 아닌, 군을 사랑했던 고인의 마음을 상징하는 녹색 리시안셔스로 올려졌다.



조계종 사노위의 故 변희수 하사 49재.


보리수아래가 진행한 장애인의 날 좌담회.



방화사건 이후 임시로 설치된 수진사 산신각.

사노위는 "성 정체성은 바꾸거나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기호와 선택의 문제도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애통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재차 추모했다. 이어 "혐오와 편견의 고통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일 것"이라며 "고인의 복직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보리수아래, 장애인의날 좌담회

불교와 문화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좌담회를 열였다. 불교와 사회에 전하는 진솔한 목소리들은 장애인들이 그 어떤 편견 없이 우리사회 동등한 일원으로 함께하길 바라는 염원이었다. 줌(zoom)을 통해 언택트로 진행된 좌담회에서 회원들은 '장애인' 이라는 단어 속에 내재된 차별의 의미를 지적하기도 했다.

홍현승 씨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자체로 보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단어가 아님에도 여전히 편견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느껴진다"며 "장애인의 사전적 의미는 걸리적거리는 사람이다.차라리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사용한다면 장애보다 사람에 초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남 씨도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의미를 담아 이분법적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래도 과거에 비해 장애인을 향한 편견의 시선이 다소 나아졌으니 좀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회원들은 당사자보다 되레 주위에서 장애를 더 크게 의식하는 분위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최 대표는 "사실 장애는 나에겐 일상이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않지만 주위에서 오히려 더 의식한다는 생각도 있다"며 " '장애인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 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기본적인 배려와 관심으로 대해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애 씨는 "확실히 장애로 인해 불편함이 있지만 장애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며 "누군가에겐 자연스러운 환경이 장애인에게는 불편한 환경일 수 있음을 서로 알고, 우리사회가 모두에게 편안한 환경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리수아래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좌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좌담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 '보리수아래' 에서 시청가능하다.

수진사 방화, 전형적인 증오범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 14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방화범 장씨와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날 배심원단을 향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며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특히 검찰 심문 과정에서 장씨는 산신각에 불을 지른 행위는 물론, 이에 앞서 수진사 종각의 현수막에 불을 붙인 행위까지 모두 인정했으며, 법정에서 담당 검사가 방화 이유를 묻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한발 더 나아가 "나의 사명이다. (불탄 전각과 함께) 순교하길 바랐다" "하나님이 불을 지르라면 또 불을 내겠다"는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도 쏟아냈다.

이는 수진사 방화사건이 왜곡된 신앙심에서 비롯됐음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발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해 마니아 CEO, '만해 아카이브' 기금 10억 쾌척

이근창 대표, 4월 19일 동국대서 전달식

만해연구소 5년간 사업 추진해
만해 스님 삶 · 사상 입체 조명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불교운동가 등 한국근현대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에 대한 모든 자료를 망라하는 아카이브가 구축된다. 5년 동안 진행되는 '만해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젊은 시절부터 만해 스님에 매료됐던 한 기업가의 후원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이근창 한양스틸프라자(주) 대표의 10억 원을 후원해 '만해 아카이브 구축사업' 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근창 대표는 4월 19일 동국대 본관 4층 총장 접견실을 찾아 기금을 전달하고 '만해 아카이브 구축사업' 운영에 대해 협약했다. 행사에는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윤재웅 만해연구소장, 서윤길 불교학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1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이 대표가 기부한 10억 원을 통해 동국대는 향후 5년간 '만해 아카이브' 를 구축한다. 사업은 동국대 만해연구소에서 맡기로 했다.

만해연구소는 만해 스님과 관련된 △자료조사 · 수집 및 정리 △만해 한용운 전집(용운당전서) 간행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만해 관련 연구자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대중에게 알려진 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스님, 독립운동가 등



이근창 한양스틸프라자 대표가 4월 19일 만해 아카이브 구축 사업 기금 10억 원을 윤성이 동국대 총장에게 전달했다.

만해 스님의 다양한 면모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독실한 불자인 이 대표는 젊은 시절부터 만해 스님을 흠모해 1974년부터 매년 3월 1일 서울 망우리에 있는 스님의 묘소를 참배하는 등 만해정신 선양에 앞장서 왔다. 지난 2019년에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만해 한용운:고난의 칼날에 서라〉를 펴냈으며, 2020년 8월에는 만해한용운연구소를 통해 '제1회 만해 한용운 콘텐츠 공모전' 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젊은 시절부터 만해 스님에 푹 빠져있었다. 그러던 중 만해 스님과 관련된 간행물이 원전(原典)과 다른 경우를 종종 접하고 '언젠가 만해스님에 관한 제대로 된 아카이브를 만들면 좋겠다' 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해라는 큰 스승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만해를 오롯이 전달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자 뜻깊은 회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원력을 동국대와의 인연을 통해 실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고교 시절 은사였던 서윤길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와의 인연으로 동국대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2019년 동국대는 기업의 이익을 소외된 약자들에게 환원하고 불교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로 이근창 대표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명사 추천 절차 비구니회 거쳐야"

4월20일 원로회의서 재결의
신임 원로의장에 수현 스님



비구니 원로 스님들이 조계종 비구니 최고법계인 명사 특별전형 추천과 관련, 전국비구니회 회칙에 따라 명사법계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자의적이고 산발적인 명사 추천을 통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조계종 종법에 따라 교구본사를 거치되 비구니계 관습에 따라 일원화된 창구로 공의를 모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주목된다.

전국비구니회 원로회는 4월 20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제7차 원로회의를 열고 명사 법계 추천 원칙을 재차 결의했다.〈사진〉 이날 회의는 신임의장단 선출과 명사 추천 원칙 결의의 건을 주요안건으로 진행됐으며 25명 원로의원 가운데 10명 참석, 15명 위임으로 성원됐다.

원로회는 특히 명사 추천 원칙과 관련, 지난 2020년 7월 채택했던 '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 요건에 대한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 입장' 을 재결의한데 이어, 앞으로 모든 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은 전국비구니회 명사법계추천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이날 원로회는 5월 2일 의장단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신임 의장단도 새롭게 구성했다. 원로의장 명성 스님의 후임으로 신임 원로의장에 수현 스님이 추대됐으며, 수석 부의장에는 일법 스님이, 운달 스님과 묘순 스님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1 안양시 시민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7기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심리 이해
대상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선착순 40명)
기간 2021년 5월 25일 ~ 2021년 7월 1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한마음선원과학원 3층(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신청 및 문의 함께하는 진화 홈페이지 edu.hansi.org
전화 031-470-3198, 3200
매주 월요일 휴무
수강료 무료교육(안양시 지원금으로 교육진행)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1회	(5/25)	괜찮아(수용하기)
2회	(6/1)	다그치지 말아요(무의식 이해하기)
3회	(6/8)	평가하지 말아요(마음 자각하기)
4, 5회	(6/15)	쉼(관계의 통찰) & 걷기명상
6회	(6/22)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7회	(6/29)	고맙습니다(부모 역할 자각)
8회	(7/6)	우리, 안아줘요(건강한 가족)
9, 10회	(7/13)	내 안의 꽃을 피워요(성찰과 비전)